

예배 WORSHIP

August 4,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사역과 행사 안내

하나님 앞으로

-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 예배기도 / 장영현 전도사
-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 성경말씀
- 여호수아 6:1-16
- 인생의 여리고
-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 ### 결단의 찬송
- 찬송 353장 / 십자가 군병 되어
(통일찬송가 390장)

현신과 나눔

- 봉헌 / 박진성 집사, 오정은 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 *세상 모든 민족이
- *죽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섭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시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낙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요 찬양예배

8:00 pm

기도 : 김훈태 집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출애굽기 25:1-9
성막공사의 서막- 기쁨과 지원

복상에세이

수고스러움을 덜는 사랑

2023.8.4 일요일



어릴 적 홍단보도를 건널 때면

나는 한 손을 반전 들고 길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함께 가던 어머니도 늘 함께 손을 들어주셨던 기억이 냅니다.

자주 생각해보면 그런 이제 막 세상을 배우기 시작하는 나를 위한

소리 없는 가르침이며, 수고스러움을 덜는 사랑입니다.

선양이 조금 더 자란 이는
아직 더 자란 이를 위해 수고스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안 그래도 되는 것도,

누구 하나 아무 말 하지 않을 사소한 것도

먼저 은혜 입은 사이기에 기꺼이 함께

손을 들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아들을 위한

소리 없는 가르침이며, 수고스러움을 덜는 사랑입니다.

믿음이 기쁨을 주는 따뜻한 믿음이 기쁨을 주는 거지 무언가를 꾹꾹하고
자기만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풀마련(풀마련)

한 주간의 기도

"주를 섬기는 일을 지금의 내 생각과 계획에 맞춰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게 하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이 주를 섬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MISSION PASTOR 정홍렬 목사
CHILDREN'S MINISTER 고순재 전도사
장영현 전도사
YOUTH MINISTER SAGAR 전도사

베드로전서 2:20



"아마도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짓들이 있겠소.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라."

삶과 신앙

영적으로 매몰라지는 3가지 이유

크리스천은 인생에서 여러 다른 영적인 계절에 직면한다. 하나님의 구속적인 손길로 그것을 대면하면, 믿음 안에서 강하게 성장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크리스천이 직면하는 계절 중 하나는 '건기'이다. 여름과 마찬가지로, 건조함은 피곤하고 굶주리고 탈수되는 것을 느끼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계절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영적으로 건조한 계절을 겪는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신명기 28 장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얻는 축복뿐만 아니라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저주를 발견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 얻게 되는 결과는 '하늘이 놋이 되는 것'이다. "네 머리 위의 하늘은 놋이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신 28:23). 건조한 계절은 대개 응답이 없는 기도, 생명이 없는 기도가 특징이다. 건기가 심한 경우에는 죄를 회개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라.

2. 말씀과 기도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부족할 때 건기가 올 수 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시 63:1). 건기를 지나갈 때 기도와 성경읽기로 순종하는지, 그리고 예배에 충분한 시간을 보내는지 체크해보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 분에 의해 새롭게 될 수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시 23:1-3)

3. 한 계절에서 다른 계절로 전환할 때

열왕기상 17 장에서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먹게 된 엘리야를 읽는다. 후에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 밀가루와 기름을 공급받아 양식을 얻는다. 엘리야가 시내에 머무르는 시간과 과부를 만난 때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시내가 말랐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왕상 17: 7-9)

어떤 건조한 계절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 심지어 교회에서 성경공부를 하고, 봉사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많은 것을 갈망한다. 이럴 때 우리는 다른 것을 향해 가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엘리야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경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8 월은 도약의 달입니다.

여호와를 앓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힘으로 득수리처럼 힘차게 나는 삶을 누립시다.

1. 금주는 만남과 나눔의 주간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 섬김의 교회의 다섯째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며, 치유와 회복과 나눔의 사역들이 더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간구합시다.
3. 여름학기 주일성경공부 열심을 내어 참여하고 영성훈련으로 삼읍시다.
4. 방학: 자녀들이 시간을 지혜롭고 활용하며, 방학을 보람 되게 보내도록 관심과 격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6. 교우와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시다.

7. 8 월의 사역일정

8.11 Oikos 셀모임 / 8.10 섬김위원회 / 9.1-2 노동절 전교인 수련회

교우동정: 홍현근/정임 집사 가정(휴가 차 타주 여행)

♥생일 축하♥ 최성주(7/16) 김실실 (8/18) 정줄리 (8/30)

예배와 양육, 말씀과 기도, 교계와 나눔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 도 제 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운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느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예 배 섬 김 이	8/4	8/11	8/18	8/25
	주일예배기도	장영현전도사	최선윤집사	구온강집사
금요예배기도	8/9	8/16	8/23	8/30
	김훈태집사	정홍렬목사	박진성집사	최내권집사
주일헌금위원	8/4	8/11	8/18	8/25
	박진성집사/오정은집사	홍현근집사/최선윤집사		
주일안내위원		8월		
		구민집사		

말씀노트

말 쓰 노 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무엇이 우선인가? -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 / 여호수아 5:1-9

요단강을 건넌 후, 이스라엘은 적진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할례를 행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거룩함과 자신감을 얻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란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스스로를 세상과 가나안의 민족들로부터 구별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신감으로 무장했다. 이처럼 보통 상식과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비합리적이며 어리석어 보이는 할례 속에 승리의 참된 비결이 담겨 있던 비밀을 깨닫고 우리 역시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가 돼야 한다.

인생의 여리고 / 여호수아 6:1-16

하나님은 준비를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견고한 여리고를 공략합니까? 이스라엘 군대와 언약궤

이스라엘은 왜 여리고를 돌아야 했습니까? 순종을 위한 조건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여리고가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합니다

말씀요약

인생의 여리고 / 여호수아 6:1-16

여리고는 이중의 성벽으로 지어진 크고 튼튼한 요새였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에는 공성전에 필요한 그 어떠한 전쟁 기구도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군사들이 잘 훈련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이에 더하여 하나님은 다신의 계획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라고 하십니다. 사실 여리고 함락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네 손에 넘겨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해야 할 바를 말씀하십니다.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십니다. 엊제 동안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겁니다. 일곱 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크게 외치면, 성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굳이 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둘게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순종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순종이 어려운 것은 이때문입니다. 자신의 고정관념, 상식, 이성, 고집, 이 모두를 내려 놓아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골라서 하는 순종은 진짜 순종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만 골라서 순종해도 된다면, 순종 못 할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자아를 내려놓는 일, 정말 하기 싫은 일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함락시켰습니다. 그저 성을 빙빙 도는 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리고성, 즉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를 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벽을 만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해결이 안될 때 마지막으로 해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지금, 호흡, 나눔

August 4, 2019

“네 영혼이 잘 됨 같아 내가 범사에 잘되고 기쁜거 같아.”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 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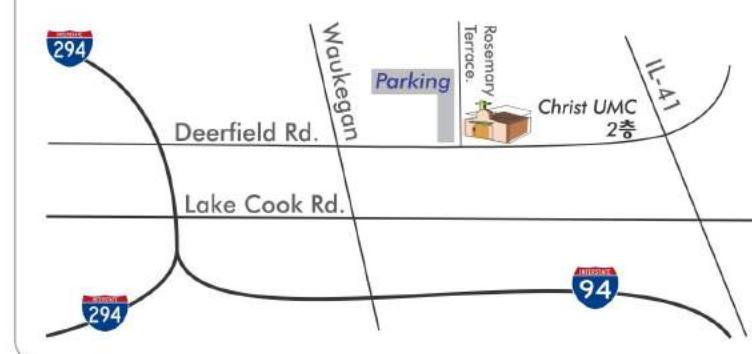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www.churchofservant.com

2019년 8월 4일

5-31호

도약의 달

만남과 나눔의 주간

꿈이 있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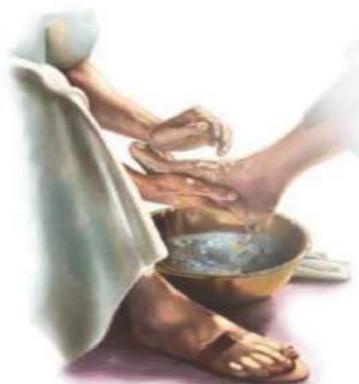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사각지대(死角地带)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내가 그들을 뵈미지 봐서 불렀고 그들이 배가 부르자 고민해졌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알아버렸다.'
호서야13:6